The Best Steel For The Better Company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TRANSFORMING FUTURE
㈜화인베스틸
경남 창녕군 창녕읍 하리 25-1
Tel : 055-259-2000 Fax : 055-259-2020
http://www.finebesteel.com



TRANSFORMING FUTURE
㈜화인연태대서남
부산시 사상구 괘정로 10 화인빌딩 15층
Tel : 051-796-7000 Fax : 051-796-7069
http://www.ficorea.com



TRANSFORMING FUTURE
동일스틸럭스㈜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716-1
Tel : 051-322-1177 Fax : 051-326-5655
http://www.dongilsteel.com

Vol. 95
2026. 10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부산체육人
부산광역시 강서구 박상준 구청장

Sports is Busan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부산체육 DNA
부산 체육시설,
경기장에서 시민의 공간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

CONTENTS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년 10월 15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95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문찬식, 공제원, 김성무,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051-500-7900
기획·제작 (주)디자인제로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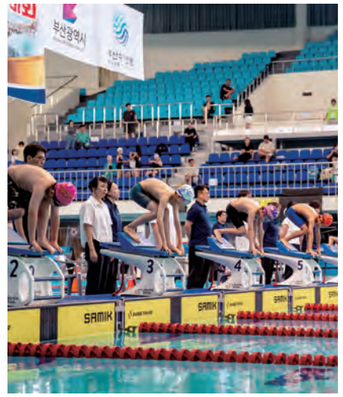
2026. 10 **Vol. 95**



열정의 부산체육



정상을 향한 질주



최고의 체육문화



Go! 우리 함께

04 부산체육人
부산광역시 강서구
박상준 구청장

08 금빛 훈련일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소개

12 푸른 바다, 큰 꿈
부산고등학교 야구부

16 Sports is Busan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 스포츠&테크놀로지
AI·VR 기술로 새로워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스포츠의 경계를 넓히는 첨단 기술

24 스포츠&웰니스
가을철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26 부산체육 DNA
부산 체육시설,
경기장에서 시민의 공간으로

30 스포츠 기자단
-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탁구대회
- 2026 부산광역시장배
Big5 생활체육 수영대회

34 종목 소개
야구

38 스포츠&컬처
달밤에체조 부산 챌린지

40 부산체육을 잇다
동래구체육회

44 BSC 뉴스
-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성료
-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제8대 동반성장위원장 선임
-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48 회원단체 소식

52 센터 info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56 부산체육 퀴즈



강서구,
부산체육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박상준** 구청장

낙동강 수변 환경을 자산으로 수상 스포츠 인프라를 다져온 강서구가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잇는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제2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인프라 확충부터 서부산권 스포츠 거점 도약까지.
박상준 구청장이 그려가는 체육 비전은 부산체육이 나아갈 또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Q. 강서구에서 나고 자라 이제는 강서구청장으로 구민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독자분들을 위해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박상준입니다.
저는 덕두초등학교, 대저중학교, 낙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생을 이곳 강서구에서 살아온 '강서 토박이'입니다. 그만큼 우리 구민분들의 일상 속 희로애락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 나누며, 강서구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조성 등 도시의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걸맞게 구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교통, 교육, 문화, 그리고 체육 복지에 이르기까지 구정 전반을 살피고 혁신해 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Q. 강서구는 카누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며 전문체육 선수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게 된 배경과 황선홍 선수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등 그간의 성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서구는 낙동강 하류와 서낙동강을 품은 천혜의 수변 환경을 자랑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수상 스포츠 인프라인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환경적 강점을 극대화하고 지역체육의 저변을 넓히고자 카누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물살을 힘차게 가르는 카누는

강인한 체력과 고도의 집중력과 팀원 간의 조화가 필수적인 종목인데, 이는 해양수도 부산과 역동적으로 전진하는 강서구의 진취적인 기상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동안 강서구 카누 선수단은 끊임없는 훈련과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국내외 유수의 대회에서 수많은 메달을 목에 걸며 강서구의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단순히 좋은 성적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체육 꿈나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비인기 종목의 저변을 넓히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황선홍 선수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 무대에 당당히 출전한 것은 15만 강서구민에게 커다란 기쁨이자 자랑입니다. 독보적인 기량과 강인한 정신력을 증명해 온 훌륭한 선수인 만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의 경험을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도 멋진 레이스를 펼쳐주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강서구는 우리 선수들이 온전히 훈련과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Q. 이제는 전문체육만큼이나 생활체육 영역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강서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에서 제약 없이 즐기는 생활체육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향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걸어서 닿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높은 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명지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서낙동강 수변 공간과 기존 공공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체육회와 협력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나아가 장애인 등 체육 소외계층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도 꾸준히 확대해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포용과 연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활체육 동호인 저변 확대와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기(배) 대회와 종목별 동호인체육대회를 계획 및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게 땀 흘리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노후 시설 개보수로 언제 찾아도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Q. 강서구 제2국민체육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한편, 부산체육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그 과정에서 강서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지 지역은 젊은 층과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갈증과 요구가 대단히 높았던 곳입니다. 그렇기에 '제2국민체육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그간 체육시설 부족으로 겪었던 불편이 시원하게 해소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열린 복합 문화·체육 공간으로서, 구민 건강 증진은 물론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산체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적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학교체육-엘리트 전문체육-생활체육'이 유기적으로 선순환하는 건강하고 통합적인 스포츠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전체 차원에서는 '권역별 체육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도화된 체육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망주가 발굴되는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강서구는 '서부산권 핵심 스포츠 거점이자 미래형 체육 인프라의 전진기지'로서 다음과 같은 3대 핵심 역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린 '수변 스포츠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변 자원을 토대로 수상 레저·스포츠를 광역 단위로 활성화하고 부산을 대표하는 해양·수상 특화 종목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동서 균형발전을 이끄는 '광역 체육 인프라의 공급처'가 되겠습니다. 광활한 부지와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향후 대규모 공공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강서구민뿐 아니라 모든 부산 시민이 찾아와 힐링하는 스포츠 복지 랜드마크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체육회 및 타 구·군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부산의 체육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다양한 대회 유치와 교류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Q. 올해 구청장님께서 특히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임기 동안 강서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싶은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강서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현안들에 대해 확실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구민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강서에 살아서 참 좋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생활 체감형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하단~녹산선 및 강서선 조기 추진, 구청사 이전, 해양혁신지구 지정 등 미래 대형 프로젝트들을 흔들림 없이 전진시키면서, 제2국민체육센터 개관을 비롯해 도로, 공원, 보육, 체육 복지 등 일상 속의 소소한 불편들을 꼼꼼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강서구의 미래상은 '일자리가 풍부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안심되며, 사통팔달 교통이 시원하게 뚫려 있고, 일상에 문화와 체육이 자연스럽게 숨 쉬는 명품 자족도시'입니다. 천혜의 낙동강 수변 자연환경과 최첨단 체육·정주 인프라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강서구가 되기 위해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온전히 담아냄으로써 든든한 초석을 확고히 다져놓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인터뷰를 통해 구민들과 체육인, 그리고 『부산체육』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체육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시는 체육인 여러분과 『부산체육』 매거진 독자 여러분! 스포츠는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따뜻하게 이어주고 우리 삶과 공동체 전체에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산체육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시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열정을 쏟아오신 체육인 여러분의 헌신과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애정 덕분입니다.
지금 강서구는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스마트 수변도시로 비상하는 위대한 여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서구는 생활체육부터 전문체육까지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스포츠가 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넘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성장동력을 더할 수 있도록 체육인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구민과의 약속은 오직 확실한 성과로 증명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신발 끈을 더욱 바짝 조이고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강서구가 힘차게 열어갈 건강하고 역동적인 내일에 체육인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든든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표의 자긍심을 품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소개

오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된다. 부산대표선수단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 52년 만에 종합 2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또한 3년 연속 6대 광역시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각 종목에서 뛰어난 기량을 펼치며 전국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1년 동안 묵묵히 흘린 땀방울이 값진 결실을 맺고, 다가오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대표선수단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후회 없는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뜨거운 응원이 필요한 순간이다.

검도





궁도





근대5종





당구





레슬링





롤러





배구



복싱



사격



에어로빅



역도



철인3종



태권도



테니스



핀수영



고교야구의 명문, 부산고의 오늘을 만나다

부산고등학교 야구부

부산고등학교 야구부는 1947년 창단 이후 수많은 프로야구 선수를 배출,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거두며 지역을 대표하는 야구 명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명성을 이어 올해 역시 탄탄한 선수진을 앞세워 8할이 넘는 팀 승률을 기록하며 활약을 펼치고 있다. 오랜 전통을 넘어 오늘의 부산고 야구부를 만들어가는 힘은 무엇일까.
박계원 감독과 선수들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봤다.



기본에 충실하게, 야구의 기반을 다지다

부산고등학교 야구부를 이끌고 있는 박계원 감독은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마친 뒤 14년간 프로야구단에서 코치로 활동하다 지난 2020년 모교의 감독으로 부임했다. 박계원 감독은 선수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야구라는 게 워낙 기술적인 스포츠다 보니 기본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성장하려면 기초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기초 체력 위주로 훈련합니다. 시즌이 시작되면 프로 생활을 하며 쌓아온 전력 분석 경험 등을 바탕으로 선수들과 회의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등학교 야구부는 타 고교야구팀에 비해 작전 훈련이나 베이스 러닝 훈련을 많이 한다. 투수 훈련을 할 때는 공을 던지기 전 단계 훈련부터 집중한다. 덕분에 경기에서 작전 수행 능력이 좋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공격력이 약해졌을 때에도 남다른 작전으로 경기를 풀어내 승리로 이끈 적이 있다는 것이 팀 선수들의 의견이다. 박계원 감독은 이 같은 기술적 훈련에 더해 인성 교육도 중요하게 여긴다.

> “야구만 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성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선수들에게 틈이 나는 대로 교육 중입니다. 저희 부산고 야구부 선수들은 교육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 스카우트들 사이에서 우리 선수들이 프로에 입단한 이후에도 예의를 갖추고 조직에 잘 융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금빛 영광을 향해

부산고등학교 야구부는 그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대활약을 펼친 추신수 선수를 비롯해 롯데 자이언츠의 주축으로 활약한 선수들을 배출하며 부산 야구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2022년에는 제50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22년 만에 정상에 올랐고, 이듬해인 2023년 제77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까지 제패하며 ‘4대 고교야구 메이저대회’ 그랜드슬램을 역대 9번째로 달성했다.



최근에는 팀 내 투타를 겸업하고 있는 하현승 선수가 U-18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결승 한일전에서 무실점 완봉승을 거두며 8년 만의 우승을 이끌었다. 하현승 선수를 지도해온 박계원 감독에게는 더없이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 "하현승 선수는 앞으로 실력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하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훗날 미국에 진출해서도 메이저리그의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산고 야구부가 바라보는 곳은 전국체전 정상이다. 박계원 감독은 10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선수들과 함께 각오를 다지고 있다.

> "부산고 야구부는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팀입니다. 항상 우승을 목표로 시합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목표로 하여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부상을 딛고 외야를 지키다

3학년 박재휘 선수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사직야구장을 찾았다가 야구의 매력에 빠지며 자연스럽게 야구를 시작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갈 무렵 갑작스러운 오른손 부상으로 좌투로 변경해야 했지만, 이를 이겨낸 지금은 빠른 발과 뛰어난 주력을 강점으로 좌익수를 맡아 외야를 지키고 있다.



> "어렸을 때부터 양손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일단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캐치볼이나 공을 던지는 기술에 대해서도 연구하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부산고등학교 야구부의 주장을 맡았다. 3학년 선수들보다 한 살 많은 박재휘 선수의 성숙함을 눈여겨본 박계원 감독이 주장직을 권유한 것이다. 동료들 역시 그의 리더십을 믿고 잘 따라준 덕분에 선수단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포기하지 말고 항상 똑같이 플레이하자'는 마음가짐으로 팀에 활기를 더한 박재휘 선수는 롯데 자이언츠 소속이었던 손아섭 선수를 보며 야구선수의 꿈을 키웠다.

> "늘 끝까지 전력질주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으셨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투지와 끈기가 특히 감명 깊었습니다."

올 한 해, 박재휘 선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준결승 진출이 확정된 경기였다.

> "8강전에서 홈런을 쳤습니다. 넘어갈 줄 모르고 끝까지 열심히 뛰었는데, 공이 담장을 넘어가는 순간 정말 짜릿했습니다."

마운드를 책임지는 우완 에이스

3학년 이승민 선수는 사회인 야구를 하는 아버지와 야구를 했던 사촌 형을 따라 유격수로 야구를 시작했다.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투수로 전향했고, '부산고 우완 에이스'로 평가받으며 마운드를 든든하게 지켜왔다. 닮고 싶은 선수로는 부산고 출신이자 이번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차출됐던 KIA 타이거즈 성영탁 선수를 꼽았다.

> "제가 1학년일 때 선배님은 3학년이셔서 같이 훈련했었는데, 한 번도 대충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열심히 하셨고, 그런 모습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께서 툭툭 조언을 해주셨는데, 제구를 잡고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승민 선수는 야수에서 투수로 전향하면서 몸을 푸는 루틴에도 변화가 생겼고, 수술까지 받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강 운동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다시 마운드 위에 섰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는 2026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고교야구대회와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를 꼽았다.

> "이마트배는 시즌 첫 경기였습니다. 8강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 다 같이 잘해보자는 팀 분위기가 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또 제 원래 최고 구속이 147km인데, 그날 148km를 던졌습니다. 마지막 봉황대기 경기에서도 최고 구속이 151km까지 나왔습니다. 두 경기 모두 5이닝 이상 잘 던진 것 같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인터뷰 이후 열린 2027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이승민 선수는 두산 베어스의 지명을 받았다. 프로야구 선수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이승민 선수의 목표는 인터뷰 당시에도 분명했다.

> "1군 마운드 위에서 공을 던지며 팬들의 응원을 들으면서 야구를 하고 싶습니다!"





미니 인터뷰 mini interview

장운대 교장

부산고등학교는 동문 출신으로 구성된 야구운영위원회가 있어 야구부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부산고 출신 선수들의 활약을 보며 그 선수들을 꿈꾸고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올해는 특히 하현승 선수가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현승 선수를 바라보고 부산고에 오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설 면에서도 추신수 선수의 도움으로 투수 전용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이외에도 모교 출신 선수들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꽃야구'와의 경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인 경기력과 좋은 조직력을 보여주며 승리했습니다. 선수들이 야구를 통해 배운 열정과 자신감을 사회에 나가서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시민 여러분께서도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고교야구나 중학야구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6일 간의 뜨거운 여정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본 아이치현 및 나고야시 일원에서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개최됐다. 이번 하계 아시안게임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국과 난민팀 등 1만여 명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41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등 총 1,052명의 선수단이 파견되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아시안게임, 새로운 막이 오르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회식은 지난달 19일 일본 나고야 미즈호공원 육상경기장에서 열렸다. 대회 슬로건은 '하나의 아시아를 상상하라(Imagine One Asia)'로, 아시아의 유대와 화합을 강조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조정의 김동용 선수와 탁구의 신유빈 선수가 기수를 맡은 한국 선수단이 16번째로 입장했으며, 3X3 농구, MMA(종합격투기), 복싱, 조정, 요트, 서핑, 탁구, 정구, 우슈 등 총 9개 종목에서 50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43개 종목, 71개 세부 종목에서 469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 새로운 종목들이 도입돼 눈길을 끌었다. 테크볼, 버추얼 태권도, MMA, 서핑, 빠델 등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순위	국가	🥇	🥈	🥉	합계
1	중국	169	89	83	341
2	일본	83	95	91	269
3	대한민국	39	43	68	150
4	인도	21	27	37	85
5	우즈베키스탄	21	25	24	70
6	이란	19	18	15	52
7	태국	18	13	21	52
8	카자흐스탄	12	24	48	84
9	홍콩	11	19	24	54
10	바레인	11	5	6	22







사진 제공: BADMINTONPHOTO,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양궁협회, 대한체육회

기존 정식 종목이었던 e스포츠도 세부 종목이 7개에서 11개로 확대되면서 선수들이 경쟁하는 무대 역시 한층 다양해졌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 등 총 15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순위 3위를 차지했다.

금빛으로 빛난 한국의 저력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은 여러 종목에 걸쳐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양궁에서는 리커브 남자 개인전 이우석 선수와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 김종호 선수에 이어 리커브 남자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양궁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배드민턴에서는 여자 대표팀이 단식과 복식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했다. 특히 안세영 선수는 일본의 야마구치 선수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2-0 완승을 거두며 여자 단식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이는 배드민턴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62년 이후 최초의 기록이다.

펜싱에서도 금빛 활약이 이어졌다. 오상욱 선수는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고, 사브르 단체전에서도 남녀 대표팀이 각각 정상에 올랐다. 송세라 선수 역시 여자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펜싱의 저력을 보여줬다.

e스포츠에서도 한국 선수단의 경쟁력이 돋보였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출전한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하며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했고, 대전격투 대표팀도 금메달을 추가하며 우수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이 밖에도 카누 스프린트에서는 조광희·김효빈 선수가 장상원·최민규 선수와 함께 남자 카약 4인승 500m에서 우승한 데 이어, 남자 카약 2인승 500m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나란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사격에서는 추가은 선수가 여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 이건혁 선수가 남자 25m 속사권총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남자 25m 속사권총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태권도에서는 정하은과 윤규성 선수가 각각 품새 여자 개인전과 남자 개인전에서 정상에 올랐고, 겨루기 여자 67kg 초과급에서는 송다빈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구기 종목에서의 금빛 활약 또한 이어졌다. 다양한 메달 성과를 거둔 가운데 5X5 농구에서 남녀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3X3 남자 농구에서도 금메달을 기록했다. 야구와 남자 축구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여자 핸드볼은 8년 만에 정상에 오르며 한국 단체 구기 종목의 경쟁력을 드러냈다.

새로운 기록, 새로운 가능성

이번 대회에서는 메달 획득을 넘어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낸 선수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기계체조에서는 여서정 선수가 여자 도마에서 한국 여자 체조 선수 최초로 아시안게임 2관왕에 올랐으며, 황서현 선수는 여자 평균대에서 우승하며 40년 만에 한국에 평균대 금메달을 안겼다. 근대5종에서는 성승민 선수가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했고, 남자 대표팀 역시 단체전에서 우승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새롭게 도입된 종목에서도 의미 있는 기록이 나왔다. 신설 종목인 테크볼에서는 이준석 선수가 남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아시안게임 테크볼 초대 챔피언에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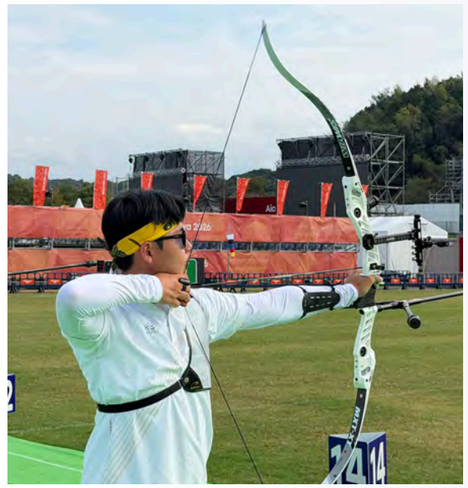
개인 종목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이어졌다. 골프에서는 김주형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유도에서는 허미미 선수가 정상에 올라 메달을 추가했다. 스포츠클라이밍의 서채현 선수는 여자 리드 결선에서 출전 선수 중 유일하게 완등에 성공하며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다. 우슈 대표팀 역시 은메달과 동메달을 수확하며 약 24년 만에 아시안게임 태극권 종목에서 메달을 따냈다.

신예 선수들의 활약 역시 앞으로의 한국 스포츠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주짓수의 박성후 선수는 이번 대회가 첫 국제대회였음에도 결승에 진출, 은메달을 획득하며 값진 성과를 남겼다. 사이클 여자 도로 독주에서는 신지은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기록하기도 했다.

스케이트보드의 강준이 선수는 결승 3차 시기 최고난도 기술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스케이트보드 역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쿠라시 여자 87kg 초과급 결승에서 김민영 선수가 우승하며 한국 쿠라시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처럼 다양한 종목에서 새로운 기록과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지며 한국 스포츠의 폭넓은 가능성을 보여줬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관왕 명단>

선수 이름	종목	획득 메달
오상욱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남자 사브르 단체전
조광희	카누	스프린트 남자 카약 4인승(K-4) 500m
		스프린트 남자 카약 2인승(K-2) 500m
김효빈	카누	스프린트 남자 카약 4인승(K-4) 500m
		스프린트 남자 카약 2인승(K-2) 500m
이건혁	사격	25m 속사권총 개인전
		25m 속사권총 단체전
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리커브 남자 단체전

2026 아시안게임을 돌아보며

지난 10월 4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막을 내리며 대한민국 선수단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는 결산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장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이상현 대한민국 선수단장,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이 참석해 선수단의 눈부신 성과를 살펴봤다.

이날 대한민국 선수단 최우수선수(MVP)에는 대회 2연패를 달성한 펜싱의 오상욱 선수가 선정됐다. 선수단이 직접 선정한 투혼상은 신설 종목인 테크볼에서 초대 챔피언에 오른 이준석 선수에게 돌아갔으며, 기량발전상은 카누에서 2관왕을 차지한 조광희·김효빈 선수가 공동 수상했다. 리더상에는 남자 3X3 농구의 배길태 감독이 선정됐다. 특별상에는 배드민턴 박주봉 총감독을 비롯해 육상 박민호 선수, 스케이트보드 강준이 선수, 요트 하지민 선수, 양궁 김종호 선수가 이름을 올리며 이번 대회에서 의미 있는 활약을 펼친 선수와 지도자들의 공로를 조명했다.

전통적인 강세 종목은 물론 신설 종목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준 한국 선수단은 다음 대회인 '2030 도하 아시안게임'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다양한 종목의 경쟁력을 확인한 만큼, 변화하는 국제 스포츠 환경 속 한국 스포츠만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대회에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가능성이 한층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약에도 기대가 모인다.

AI·VR 기술로 새로워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스포츠의 경계를 넓히는 첨단 기술



이미지 제작: 생성형 AI(Gemini) 활용

자료 출처: 한국경제, 서재원, '한국스포츠과학원, 첨단 스포츠과학으로 아시안게임 총력 지원'
한국일보, 김진욱, '펜싱 국대팀 필승 전략, AI가 돕는다… 아시안게임 훈련에 SKT 시스템 도입'
주간조선, 임동헌,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 '버추얼 태권도'…시공간 경계를 허물다'
연합뉴스, 김동한, '[아시안게임] 첫선 보인 버추얼 태권도, 장비 문제 등 운영 미숙은 과제'
이데일리, 이소현, '네이버 치지직,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생중계…AI 하이라이트 강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첨단 기술과 결합하며 변화하는 스포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선수들의 훈련과 새로운 경기 방식, 관람 환경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이 아시안게임 곳곳에 활용되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기술의 발전이 스포츠에 가져온 변화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AI·첨단 분석 기술로 높이는 국가대표 경기력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 전 한국스포츠과학원은 인공지능(AI)과 3차원 동작 분석 등 스포츠과학 기술을 활용해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했다.

배드민턴에서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상대 선수의 경기 패턴과 이동 거리, 스트로크 위치 등을 분석하고, 이를 경기 전략 수립에 활용했다. 사격에서는 총구 진동과 선수의 자세를 분석해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3차원 스캐너를 활용해 개인 체형에 최적화된 총기 구성품을 제작했다. 수영에서는 3차원 동작 분석으로 도약 속도와 각도, 거리 등을 측정해 기록 향상을 뒷받침하였고, 필드하키에는 AI 기반 실시간 경기 분석과 GPS·드론·근력 측정 장비를 결합한 지원 체계를 적용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은 선수의 움직임과 경기 데이터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종목별 특성에 맞는 훈련과 전략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AI 펜싱 분석, 경기 영상을 데이터로 바꾸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펜싱 대표팀은 남녀 사브르·에페·플뢰레 전 종목에서 금메달 4개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눈부신 성과의 중심에는 선수들의 수많은 땀방울과 경기력을 한층 끌어올린 AI 기술이 있다. 아시안게임에 나선 펜싱 국가대표 선수단은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펜싱 전력 분석 시스템 'SKT-FAN'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을 받았다. 해당 시스템에는 선수가 별도의 센서를 부착하지 않아도 경기 영상만으로 관절의 위치와 움직임을 추적하는 '비센서 AI 장면 포착(Motion Capture)' 기술이 적용됐다. 영상 속 선수의 움직임과 경기 특징을 데이터로 정리해 저장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대규모

20th Asian Games
Aichi-Nagoya 2026



언어 모델(LLM)과 결합해 전력 분석 리포트로 만들어진다.

펜싱은 예선부터 본선 토너먼트까지 여러 경기를 치르는 만큼 전력 분석관이 모든 상대 선수의 경기 영상을 일일이 살펴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경기 종료 후 영상을 편집하고 분석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도 빼놓을 수 없다. SKT-FAN은 이처럼 반복적으로 이뤄지던 작업 시간을 기존 한 경기당 약 1시간에서 10분 수준으로 줄였다. 펜싱 국가대표 코치와 선수들은 경기 영상의 주요 장면을 빠르게 확인하고, 상대 선수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렇게 AI가 경기 영상의 1차 분석을 맡으면 전력 분석관과 지도자는 경기 장면을 정리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선수의 경기 흐름과 상대의 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집중할 수 있다. 기술이 경기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략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가상현실과 만난 새로운 경기 방식

기술의 발전은 스포츠의 무대까지 바꾸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는 기존 태권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버추얼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버추얼 태권도는 세계태권도연맹(WT)이 개발한 종목으로 태권도 겨루기에 첨단 가상현실(VR) 기술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2023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를 통해 국제 무대에 처음 등장했고, 도입 초기부터 국제 대회와 관련 활동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스포츠 종목으로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경기는 VR 헤드셋과 동작 추적 장비를 착용하고 가상의 경기장에서 상대 선수와 대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센서 네트워크는 선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며, 이를 가상공간 속 아바타의 동작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경기는 60초 단위로 진행되고 3판 2선승제로 승부를 가린다. 격투 게임과 유사하게 상대방의 파워 게이지를 먼저 소진시키거나, 경기 종료 시 더 많은 게이지를 남긴 선수가 승리한다. 발차기로 상대방의 몸통이나 머리를 타격해야 유효타로 인정되며, 머리 공격은 상대의 체력을 두 배로 감소시킨다.

경기 과정에서는 고성능 에이전트 알고리즘이 발차기의 궤적과 속도, 반응 시간 등을 분석한다. 발차기 속도에 따라 공격은 강·중·약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상대에게 가해지는 데미지도 달라진다. 선수들은 각자 4m×4m 크기의 매트 안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상대와 신체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안향식 선수가 국내 최초로 태권도 겨루기와 버추얼 태권도에 동시 출전했다. 그 결과 태권도 겨루기 남자 58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버추얼 태권도에서는 베트남의 쩌우 응옥 뚜옛 상에게 1대2로 아쉽게 패하며 16강에서 대회를 마쳤다. 안 선수는 한 대회에서 최초로 현실과 가상의 두 태권도 종목에 나란히 도전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기 형태에 도전한 의미 있는 사례를 남겼다.







이번 아시안게임의 버추얼 태권도 경기는 발전 과정에 있는 종목인 만큼 장비 점검으로 경기가 자주 중단되는 등의 보완해야 할 점도 나타났다. 그럼에도 가상공간에서 선수의 움직임을 구현하고 기존 스포츠의 경기 방식을 새롭게 구성하며, 스포츠가 펼쳐지는 공간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AI 중계로 더 풍성해지는 경기를 즐기는 방식

첨단 기술과 스포츠의 결합은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무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를 시청하는 관람객에게 더 편하고 다양한 관람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위한 특집 페이지를 개설하고,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을 통해 경기 생중계와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AI 기반 시청 편의 기능을 확대해 관람객이 경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청 편의성을 높였다.

'AI 클립'은 경기의 주요 장면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며 'AI 챕터'는 경기 영상을 구간별로 나누어 원하는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는 여러 종목의 경기를 원하는 장면별로 효율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한국어 중계 음성의 주요 내용을 국문 자막으로 제공하는 'STT(Speech-to-Text)' 음성인식 기술도 활용한다. 음성을 문자로 바꿔 경기 중계 내용을 소리로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막을 통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AI와 VR을 비롯한 첨단 기술은 스포츠 전반의 모습을 바꾸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변화하는 스포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선수의 움직임을 읽고,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경기를 만들며, AI 기능으로 경기를 다시 보는 시대. 스포츠의 다음 장면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단풍에 취해 방심하면 '아찔'

가을철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은 무더위가 한풀 꺾여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산행에 나설 때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일교차가 큰 날씨와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뿐만 아니라, 짧아진 일조시간, 낙엽에 가려진 돌이나 나뭇가지 등이 산행 중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는 코스를 선택하거나 준비 없이 산에 오르는 것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안전하고 즐거운 가을 산행을 위해서는 출발 전 코스와 날씨를 확인하여 나에게 맞는 산행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행 전 날씨와 등산로 확인하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출발 전부터 꼼꼼한 준비를 해야 한다. 산행 당일의 날씨와 기온을 확인하고, 강수 또는 강풍 예보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다면 산행을 미루는 것이 좋다. 산은 평지보다 기온이 낮고 날씨가 갑자기 달라질 수 있어 가벼운 겉옷이나 보온용품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상 소요 시간과 난이도를 미리 확인하고, 해가 지기 전에 충분히 하산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아야 한다. 출발 전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산행 장소와 예상 하산 시간을 미리 알려두는 것도 좋다. 만일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가을 등산과 낚시 안전사고에 주의해요!', 2023.

낙엽길에서는 한 걸음 더 천천히

가을 산길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낙엽이다. 낙엽에 가려 돌이나 나뭇가지, 움푹 파인 곳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에 젖은 낙엽은 미끄러워 발을 헛디딜 위험도 있다. 내리막길에서는 보폭을 줄이고 발밑을 살피면서 천천히 걷는 것이 좋다.

신발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미끄럼을 줄일 수 있는 등산화를 착용하고, 신발 밑창이 지나치게 닳지는 않았는지 확인한다. 산행 중 사진을 찍거나 휴대전화를 확인할 때는 걷는 것을 잠시 멈추는 것이 안전하다. 주변 풍경을 감상할 때도 발밑과 앞길을 함께 살피며 천천히 이동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내 체력에 맞게, 무리한 산행은 피하기

가을 산행의 좋은 풍경을 더 즐기고 싶다는 마음에 계획보다 긴 코스를 선택하거나 무리해서 속도를 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오르막길에서는 중간중간 쉬어가고, 물도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다.

여럿이 함께 산행한다면 일행과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의 상태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체력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피로하거나 몸에 이상이 느껴질 때는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안전하게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기억하자.

해가 지기 전 여유 있게 하산하기

가을에는 여름보다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산행 시간을 넉넉하게 계획해야 한다. 산에서는 해가 지면 주변이 빠르게 어두워지고 기온도 떨어져 길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정상에 오르는 것만큼 안전하게 하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행이 예상보다 늦어지기 시작했다면 무리해서 일정을 이어가기보다 서둘러 하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시 길을 잃었다면 당황해 무작정 이동하기보다 지나온 길과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출발 전에는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하고, 보조배터리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119에 신고하고, 주변의 산 이름이나 등산로 이름, 이정표 등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작은 준비가 안전한 산행을 만든다

산행 전에는 물과 간단한 간식,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보온용품 등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도록 한다. 산에서는 평소보다 체력 소모가 클 수 있으므로 충분히 쉬면서 수분도 틈틈이 보충해야 한다.

가을 산행은 아름다운 풍경과 상쾌한 공기를 즐기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산에서는 날씨와 지형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설마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미리 준비하고 안전을 살피는 자세가 중요하다. 조금 천천히 걷더라도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가을 산행의 즐거움을 더욱 오래, 건강하게 누릴 수 있다.

가을 산행 전 꼭 확인하세요!

- ☐ 산행 전 날씨와 기온, 등산로 통제 여부 확인하기
- ☐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 코스와 산행 시간 정하기
- ☐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등산화 착용하기
- ☐ 물과 간단한 간식, 보온용품 챙기기
- ☐ 낙엽이나 젖은 길에서는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걷기
- ☐ 일행과 떨어지지 않고 서로의 상태 확인하기
- ☐ 해가 지기 전에 여유 있게 하산하기
- ☐ 휴대전화와 보조배터리를 준비하고 산행 일정 미리 알리기

부산 체육시설, 경기장에서 시민의 공간으로

과거 치열하게 승부를 가르던 무대였던 체육시설은 오늘날 시민의 건강한 일상과 여가를 보듬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부산의 체육시설 역시 과거의 영광을 발판 삼아 시민들의 활기찬 내일을 책임지는 일상이 되어, '건강한 부산'을 완성해 가고 있다.



구덕운동장, 부산의 첫 공설운동장

부산의 첫 공설운동장인 구덕운동장의 시작은 서대신동2가에 위치한 동물원 옆 빈터였다. 꽤 넓은 면적의 빈터는 평소 주민들의 놀이터였고 때로는 체육대회 장소로 활용되었다.

그러다 1928년, 이곳 빈터에 부산공설운동장이 건립되었다. '구덕운동장'이라는 이름은 1982년에 개칭된 것이다. 당시 부산공설운동장에서는 그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행사와 궐기대회 및 집회가 자주 열렸다. 그중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건도 있었다. 일제의 통제가 삼엄했던 1940년, '경남학도 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일이다. 심판을 맡은 일본군이 계속해서 편파 판정을 하자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에 항의했다. 그러나 항의는 번번이 묵살되었고 분노한 학생들은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이 행진이 부산항일학생운동의 시발점이었다.

이후 1963년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스탠드가 설치되고 1971년에 구덕실내체육관이 건립되는 등의 변화를 거치며 진정한 종합운동장으로 거듭난 구덕운동장에서는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같은 각종 국내외 대회가 치러졌다.

구덕운동장은 부산종합운동장이 건립되기 전까지 부산이 체육 도시로 나아가는 중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시민들의 곁을 지키며 체육시설 이상의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현재 주경기장(축구장, 육상트랙), 테니스장, 풋살장,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씨름경기장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체육시설로서 여전히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자료 출처: 『부산체육 50년사』, 부산시보, 부산광역시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근현대사아카이브 부산역사문화대전 홈페이지 사진 출처: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이야기 홈페이지

부산종합운동장, 대한민국 제2도시의 품격

구덕운동장에 이어 부산을 대표하는 종합운동장이라는 배턴을 이어받은 건 부산종합운동장이다. 부산종합운동장은 경제 성장과 함께 점차 늘어나는 경기 수요에 대비하고, 대한민국 제2도시라는 면모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건립되었다. 1979년에 공사에 착수하여 실내체육관과 야구장(1985년), 체조체육관(1986년), 수영장(1989년) 등을 차례로 준공하였으며,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해 아시아드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준공하며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특히 아시아드주경기장은 최대 수용인원이 8만여 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경기장으로, 국내 최초의 '국제육상경기연맹규정에 의한 1종 공인 경기장'이자 공연 등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이다. 이곳에서 2002년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첫 승을 거두었으며,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제8회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 등의 경기가 치러졌다. 또한 여러 국제 대회의 개·폐회식이 이곳에서 진행되면서 부산은 국제 스포츠 도시의 반열에 올랐고, 그 위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드주경기장이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면, 사직야구장은 부산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본래 야구, 축구, 럭비 등의 종목을 치를 수 있는 다용도 경기장으로 지어졌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야구 경기장으로만 사용되면서 부산 프로야구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사직야구장은 단일 구장으로서는 최다 관중 기록을 보유하는 등 대규모 관중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꾸준히 사랑받아 온 사직야구장은 2031년 개장을 목표로 재건축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첨단 기술과 친환경 요소가 접목된 미래형 스마트 야구장 구현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명품 체육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체육시설, 여가시설로의 확장

부산의 체육시설은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기점으로 대폭 확충되었는데, 아시아드주경기장과 비슷한 시기에 강서체육공원, 금정체육공원, 기장체육관 등이 완공되었기 때문이다.

강서체육공원은 실내체육관, 하키경기장, 양궁경기장, 축구연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소개한 종합운동장과 차이가 있다면 문화센터 등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육가족공원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스포원파크'라 불리는 금정체육공원 역시 체육 진흥과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자 건립되었으며, 경륜장을 비롯해 스포츠센터, 테니스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장체육관은 기장 지역에 처음 건립된 대규모 체육시설로, 농구, 배구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치를 수 있어 시민들의 놀이 및 휴식 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산에는 화명수상레포츠타운, 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 부산실내빙상장, 북구국민체육센터, 을숙도체육공원 등 해양도시의 특색을 살린 시설부터 특정 종목에 특화된 시설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체육시설은 승부를 가르는 무대를 넘어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소통의 공간으로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아울러 부산은 모든 시민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700개소 이상을 조성하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 이처럼 부산은 탄탄한 체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체육이 일상인 건강한 체육도시에 다가서고 있다.

탁구공에 담긴 부산 시민의 열정과 화합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탁구대회

제6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이승빈



지난 9월 12일과 13일, 부산실내체육관을 비롯한 종목별 경기장에서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개최됐다. 부산 시민들의 웃음과 응원, 그리고 스포츠를 향한 열정이 어우러진 경기장에는 화합의 분위기가 가득했다. 다양한 종목에서 서로의 기량을 겨루며 함께 즐긴 가운데, 탁구대 위에서 펼쳐진 부산 시민들의 열정과 현장의 이야기를 살펴봤다.

이번 대회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고 부산광역시와 함께 주최했으며, 16개 구·군 시민 1만 5천여 명과 선수 5천여 명 등 약 2만여 명이 참여해 대축전의 규모를 더했다. 12일에는 개회식과 축하공연이 진행됐으며, 13일에는 15개 종목에서 부산 시민들의 열띤 경기가 펼쳐졌다.

그중 탁구 경기는 사직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돼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화합을 느낄 수 있었다. 탁구 종목에는 부산 14개 구·군 선수 220여 명이 참가해 팽팽한 경쟁을 펼쳤다. 오전에는 조별리그 방식으로 예선전이 진행됐으며, 각 조 상위 2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오후에는 8강을 시작으로 준결승과 결승까지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어지며 우승을 향한 치열한 승부를 벌였다.

탁구는 테이블 중앙에 설치된 네트를 사이에 두고 공을 주고받는 경기로, 상대 코트에 공을 정확하게 보내 득점을 겨룬다. 11점을 먼저 얻는 선수가 한 게임에서 승리하며, 10-10 동점이 될 경우 2점 차가 날 때까지 경기를 이어간다. 경기는 5전 3승제로 진행되며, 대결에서는 총 7번의 경기를 치러 더 많은 승리를 거둔 팀이 승자가 된다.

경기 순서는 30·40대 혼성복식, 40·50대 남자복식과 여자복식, 50·60대 혼성복식, 40·50대 여자복식과 남자복식, 60대 이상 혼성복식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은 가볍게 랠리를 주고받으며 공의 감각과 컨디션을 점검했다. 반복해서 서브와 리시브를 연습하며 집중하는 선수들의 모습과 함께 경기장에는 본격적인 승부를 앞둔 긴장감이 감돌았다. 선수들의 진지한 표정과 끊임없는 연습은 곧 펼쳐질 경기와 치열한 승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경기가 시작되자 여러 코트에서 선수들의 힘찬 기합과 탄성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선수들은 쉴 새 없이 공을 주고받으며 빠르게 랠리를 이어갔고, 탁구 특유의 속도감 있는 진행에 경기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코트 주변에서는 동료 선수들과 응원단이 박수와 격려를 보내며 선수들에게 힘을 보탰다. 특히 각 부문에서 수준 높은 경기력이 이어지자 현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경기를 준비 중이던 한 선수는 "각 구를 대표할 만큼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출전해 경기 수준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선수들은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공격을 주고받으며 접전을 펼쳤고, 관람객들은 선수들의 수준 높은 경기력에 집중하며 경기를 지켜봤다.

오후 본선에는 북구, 금정구, 남구, 사하구, 사상구, 기장군, 해운대구, 동래구 등 총 8개 구·군이 진출해 우승을 향한 경쟁을 이어갔다. 8강부터 시작된 토너먼트에서는 각 팀이 한 경기 한 경기 집중력을 발휘하며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준결승에 진출한 팀들은 빠른 랠리와 안정적인 수비를 앞세워 결승 진출을 다퉜으며, 결승전에서도 양 팀의 접전이 이어지며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긴장감을 높였다. 결국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사상구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금정구가 2위에 올랐다. 남구와 해운대구는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은 15개 종목에서 부산 시민들의 실력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탁구 경기에서는 빠른 랠리와 치열한 승부 속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했고, 경기장 곳곳에서는 동료 선수와 가족, 응원단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승패를 가리는 순간에는 진지하게, 경기가 끝난 뒤에는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이어지며 생활체육이 가진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줬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직접 경기장을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

스스로의 한계를 향한 스퍼트

2026 부산광역시장배 Big5 생활체육 수영대회

제6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정상우



지난 9월 19일 '2026 부산광역시장배 5대 인기종목 수영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사직실내수영장에서는 물살을 가르는 힘찬 물소리와 관중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찬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실내수영장과 동호회에서 묵묵히 훈련하며 땀 흘려온 동호인들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이번 대회는 전문 선수들이 아닌, 수영을 사랑하는 순수 동호인들이 주인공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학업과 직장 등 각자의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성인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물을 사랑하는 유소년 선수들과 초등학생 아이들도 대거 출전해 눈길을 끌었다. 출발대 위에 선 꼬마 수영선수들부터 직장인 동호인까지, 세대를 뛰어넘어 수영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로 어우러졌다.

이날 대회장에 참석한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생활체육은 부산 체육의 든든한 뿌리"라고 밝히며 생활체육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체육 환경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는 자유형, 평영, 배영, 접영 등의 개인전을 비롯해 계영, 혼계영, 이색 종목인 울트라핀 등의 단체전까지 다양하게 진행됐다. 물살을 부드럽게 가르는 정교한 영법부터 폭발적인 스퍼트를 보여주는 단거리 스프린트까지 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수영이 물속에서 온전히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하는 종목인 만큼, 어린 유소년 선수들부터 성인 동호인들까지 각자의 연령대와 그룹에 맞춰 최선의 기록을 내기 위해 물살을 가르며 전력을 다했다.

선수들이 스타트대 위에서 호흡을 고를 때마다 수영장은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입수와 동시에 터져 나오는 물보라와 함께 관중석에서는 일제히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히 꼬마 선수들이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결승패드를 향해 영법을 이어갈 때마다 학부모와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조 편성에 따라 홀로 레인에 서서 외로운 레이스를 치러야 했던 참가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패드를 터치하며 완주하는 순간에는 경기장 안의 모든 관중과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감동의 박수를 보내며 장내를 훈훈하게 물들였다.



동호인 대회인 만큼 기록 그 자체보다는 자신의 목표 기록에 도전했을 때 터져 나오는 선수들의 환한 미소가 더욱 빛났다. 레이스를 마치고 나와 물안경을 벗으며 환하게 웃는 유소년 선수들의 모습과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의 함성은 수영이라는 종목이 가진 끈기와 열정을 증명했다. 물살을 가르는 선수들은 정교한 스트로크와 폭발적인 지구력을 선보이며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드라마를 써 내려갔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경기는 개회식에 이어 오후까지 점심시간 없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경기를 마친 후에도 서로의 기록에 대해 조언하며 수영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나누었다. 꿈나무 유소년부터 성인 동호인까지 함께 어우러진 이번 대회는 승패에 따라 메달 색깔을 가르는 자리를 넘어, 부산 지역 수영 가족 모두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화합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남았다. 이번 대회의 뜨거운 에너지가 부산 전역의 생활체육 현장으로 건강하게 퍼져나가, 더 많은 시민과 유소년 꿈나무들이 물과 함께 활기찬 일상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공 하나에 갈리는 운명

투수와 타자의 치열한 승부, 야구



자료 출처: 한국야구위원회(KBO),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대한야구심판아카데미, 올림픽 공식 사이트

단 한 번의 타격에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스포츠가 있다. 바로 야구다. 투수가 타자를 향해 공을 던지는 순간, 그 공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경기의 흐름과 분위기는 끊임없이 뒤바뀐다. 한국 프로야구가 3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야구의 매력과 특징을 살펴보자.

야구의 역사

오늘날 야구는 네 개의 베이스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배치한 경기장에서 진행되며, 영어로는 '베이스볼(Baseball)'이라고 불린다. 야구가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에 걸친 변화가 있었다. 야구의 기원에는 여러 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13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크리켓(Cricket)'과 구기 종목들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세기에는 '라운더스(Rounders)'와 같은 경기가 등장했고, 배트와 공을 사용하는 경기 문화가 미국으로 전해지면서 '타운볼(Town Ball)'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1845년, 알렉산더 카트라이트는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야구팀으로 알려진 '닉커보커스'를 조직했다. 당시 다이아몬드 형태의 경기장과 9명의 선수, 3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규칙을 도입했는데, 이는 현대 야구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로 평가된다.

이후 야구의 인기는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1869년에는 선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최초의 프로팀인 '신시내티 레드 스타킹스'가 등장했다. 프로야구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1876년에 내셔널리그가, 1901년에 아메리칸리그가 출범했으며, 두 리그를 중심으로 미국 프로야구가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메이저리그로 이어지게 되었다.

한국의 야구

한국 야구의 역사는 1904년 기독교청년회(현 YMCA)의 창립 공로자인 미국인 필립 질레트가 청년 회원들에게 야구 규칙과 장비 사용법을 가르치면서 시작됐다. 1906년에는 독어학교와 기독교청년회가 최초의 야구 경기를 개최했으며, 1911년부터는 명문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야구팀이 잇따라 창설됐다.

해방 이후인 1946년에는 조선야구협회가 설립됐고, 1954년 아시아야구연맹에 가입하면서 대한야구협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고교야구와 대학야구, 실업야구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 야구가 빠르게 성장했고, 1963년 제5회 아시아야구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대한야구협회는 2016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로 새롭게 출범했으며, 현재 아마추어 야구를 총괄하고 있다.

한편, 프로야구는 1981년 한국야구위원회(KBO) 출범 이후 1982년 6개 구단 체제로 처음 시작됐다. 이후 KBO 리그가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는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 KT 위즈, SSG 랜더스, 롯데 자이언츠, 한화 이글스, NC 다이노스, 키움 히어로즈 등 총 10개 구단이 리그를 구성하고 있다. 각 구단은 매년 정규시즌 144경기를 치르고, 정규시즌 성적에 따라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놓고 경쟁한다.

KBO 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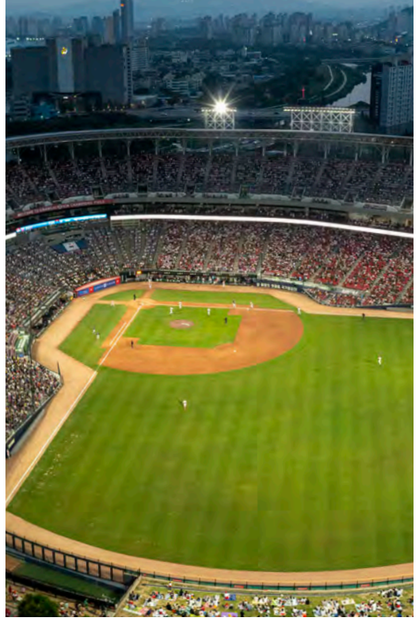
KBO와 KBSA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은 국제무대에서도 꾸준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회 5연패를 달성했으며, 지난 3월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17년 만에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7 WBSC 프리미어12를 비롯한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이 펼칠 활약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다.

야구장의 특징

야구장은 홈 플레이트를 중심으로 1루와 2루, 3루가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룬다. 각 베이스 사이의 기준 거리는 약 27.4m이며, 투수판과 홈 플레이트 사이의 거리는 약 18.44m이다. 파울 라인을 포함한 내야 및 외야는 페어 구역이며, 그 밖의 구역은 파울 구역이다. 외야 펜스까지의 거리는 구장마다 달라 각 경기장만의 특징을 만들어낸다. 경기장 양쪽에는 각 팀의 선수와 코칭스태프가 대기하는 더그아웃이 설치되어 있으며, 외야 양쪽에는 투수들이 몸을 풀 수 있는 불펜이 마련되어 있다.

야구의 포지션

야구는 두 팀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며 상대 팀보다 더 많은 득점을 올리는 팀이 승리하는 스포츠다. 경기는 총 9이닝으로 진행되며, 한 이닝은 양 팀이 각각 한 차례씩 공격과 수비를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수비팀이 공격팀 선수 3명을 아웃시키면 공격과 수비가 교대된다. 경기 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9이닝이 끝난 뒤에도 동점일 경우 연장 이닝을 진행해 승부를 가린다. KBO 리그에서 연장 이닝은 최대 12회까지 진행된다.



경기 중에는 필요에 따라 엔트리에 등록된 다른 선수로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된 선수는 다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투수는 마운드 위 투수판에서 포수가 있는 홈 플레이트를 향해 시속 140~150km의 공을 던지며, 보직에 따라 선발·중간·마무리 투수 등으로 나뉜다. KBO 리그에서는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을 통해 투구가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판정하며, 투수와 포수는 피치컴을 활용해 구종과 수비 작전을 주고받는다.

야구의 주요 포지션과 역할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포지션	주요 역할
배터리	투수	구종을 구사하며 타자를 상대한다.
	포수	홈 플레이트 뒤에서 투구를 받고, 투수에게 구종을 전달하며 수비를 이끈다.
내야수	1루수	1루를 중심으로 수비하며, 내야 타구를 처리한다.
	2루수	2루를 중심으로 수비하며, 내야 타구를 처리한다.
	3루수	3루를 중심으로 수비하며, 내야 타구를 처리한다.
	유격수	2루와 3루 사이를 수비하며, 넓은 범위의 내야 타구를 처리한다.
외야수	좌익수	외야 왼쪽을 수비하며, 좌측으로 날아오는 타구를 처리한다.
	중견수	외야 중앙을 수비하며, 넓은 범위를 담당하기에 빠르게 뛸 수 있는 주력이 요구된다.
	우익수	외야 오른쪽을 수비하며, 우측으로 날아오는 타구를 처리한다.
-	지명타자	수비에는 참여하지 않고, 투수를 대신해 타격을 담당한다.

공격에서는 투수를 제외한 수비수들이 정해진 타순에 따라 타석에 들어서며, 타순은 선수의 타격 능력과 주루 능력 등을 고려해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출루 능력과 주루 능력이 중요한 1~2번 타자는 '테이블 세터', 장타와 타점 생산 능력이 중요한 3~5번 타자는 '클린업 트리오'로 불린다. 하위 타선인 6~9번 타자는 앞선 타순을 뒷받침하며 출루와 득점 기회를 만든다.

구분	등판 시점	담당 이닝	주요 역할
선발투수	경기 시작	초반~중반	보통 5일 간격으로 등판해 경기 초반부터 가능한 많은 이닝을 책임진다.
중간계투 (불펜투수)	선발투수 교체 후	중반	선발투수가 내려간 뒤 마무리투수에게 공을 넘기기까지의 이닝을 책임진다.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의 중간계투가 차례로 투입된다.
마무리투수	경기 후반	8회~9회	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 등판해 리드를 지키며 경기를 마무리한다.









야구의 규칙

① 스트라이크와 볼

- 다음과 같은 경우 스트라이크로 판정한다.
  - 타자가 배트를 휘두르지 않고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한 경우
  - 타자가 배트를 휘둘렀으나 공에 맞지 않은 경우
  - 타자가 친 공이 페어 구역을 벗어나 파울이 된 경우
    (단 2스트라이크 이후의 파울은 카운팅 되지 않음)
- 타자가 배트를 휘두르지 않은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면 볼로 판정한다.
- 스트라이크가 3개면 삼진 아웃, 볼이 4개면 볼넷으로 1루에 출루한다.

② 아웃

- 다음과 같은 경우 타자 또는 주자는 아웃으로 판정한다.
  - 타자가 스트라이크 3개를 기록해 삼진을 당한 경우
  - 타자가 친 공을 수비수가 땅에 닿기 전에 잡은 경우
  - 타자가 친 공을 수비수가 처리해 타자 주자보다 먼저 베이스를 밟은 경우
  -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는 과정에서 공을 가진 수비수에게 태그된 경우 등
- 한 팀이 3개의 아웃을 기록하면 공수가 교대된다.

③ 출루와 득점

- 타자는 안타나 볼넷, 수비수의 실책 등으로 1루에 출루할 수 있다.
- 출루한 주자는 도루나 후속 타자의 타격 결과 등에 따라 1루·2루·3루를 차례로 거쳐 홈 플레이트를 밟을 수 있다.
- 주자가 1루·2루·3루를 차례로 거쳐 홈 플레이트를 밟으면 1득점이 기록된다.
- 타자가 친 공이 페어 구역의 외야 펜스를 넘어가면 홈런이 되며, 타자를 포함해 베이스에 있던 모든 주자가 홈 플레이트를 밟아 득점한다.

달빛 아래 함께하는 가을 운동

달밤에체조 부산 챌린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밤, 탁 트인 야외에서 몸을 움직이며 건강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 부산광역시와 부산시 생활체육문화센터는 시민 누구나 쉽고 즐겁게 생활체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2026 달밤에체조 부산 챌린지'를 개최하여 9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토요일마다 총 7회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은 물론 문화 공연과 시민 참여 이벤트까지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공간에서 부산의 가을밤을 만끽해보자.

자료 출처: 부산광역시 대표 블로그, 달밤에체조 부산 챌린지 홈페이지 사진 출처: 달밤에체조 부산 챌린지 홈페이지











부산의 아름다운 야외 공간에서 만나는 생활체육

2026 달밤에체조 부산 챌린지는 평소 운동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부터 운동을 즐기는 사람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산 특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다. 전문 강사와 함께 체조와 요가, 맨몸 운동 등을 배우며 몸을 움직이고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과 북항친수공원, 화명생태공원의 달빛 아래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가족과 친구 혹은 연인과 함께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하며 건강한 활력을 채울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부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새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어, 에코스포츠 관광 콘텐츠로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행사는 장소별 특색에 맞춰 진행된다. 9월과 10월에는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3회, 10월에는 북항친수공원에서 2회,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화명생태공원에서 2회가 이어진다. 시민 누구나 가을밤의 매력을 느끼며 함께 땀 흘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체조와 요가, 줌바, 서킷 트레이닝, 어린이 운동 등 다양한 종목을 선보인다. 전 국가대표 체조선수 신수지와 소방관 출신 방송인 홍범석을 비롯해 요가소년, 심으뜸 등 대중에게 친숙한 운동 인플루언서들이 강사로 참여해 정확한 동작과 재미있는 지도로 운동의 즐거움을 전한다. 평소 운동을 시작하기 어려웠던 사람도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몸을 움직이며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볼 기회다.

운동과 공연, 참여 이벤트가 어우러지는 가을밤

행사장에서는 운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도 마련돼 가을밤의 정취를 한층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메인 프로그램에 앞서 줄넘기와 댄스스포츠, 복싱, 태권도 등 역동적인 체육 공연과 국악, 버스킹, 코미디, 서커스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가을밤의 분위기를 한층 풍성하게 만든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도 빼놓을 수 없다. 스텝박스 챌린지와 체력왕 선발대회, 타바타 챌린지, 랜덤플레이 댄스 챌린지 등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운동에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이 밖에도 체험 부스가 운영돼 운동을 매개로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재미를 더한다.

메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전용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각 회차는 300명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체험 부스와 문화 공연, 시민 참여 이벤트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올가을에는 가까운 야외 공간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몸을 움직여 보자. 아름다운 부산의 밤을 배경으로 운동의 즐거움과 일상의 활력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2026 달밤에체조 부산 챌린지'가 그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달밤에체조 부산 챌린지 홈페이지

구분	내용
행사 일정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9월 19일(토), 9월 26일(토), 10월 3일(토) **북항친수공원 잔디광장:** 10월 17일(토), 10월 24일(토)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 10월 31일(토), 11월 7일(토)
운영 시간	9월 19일~11월 7일 매주 토요일 13:00~21:00
참여 방법	온라인 사전 신청(공식 홈페이지 참고)
프로그램 내용	① 매주 인기 유명 운동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신나는 운동 ② 시민 체력장, 운동 챌린지 등 시민 참여 이벤트 ③ 체육 공연·문화 공연 / 가족 단위 체험 부스 운영

체육으로 더 건강하게
함께 뛰며 더 행복하게

동래구체육회



1999년 창립된 동래구체육회는 태권도, 배드민턴, 라인댄스 등 남녀노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동래구 국민체육센터를 직접 관리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을 찾아가는 현장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어 든든하면서도 친근한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해내고 있다.

Q. 동래구체육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동래구체육회는 21개 정회원 종목단체, 4개 인정단체, 304개 클럽 및 12,915명의 동호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탄탄한 생활체육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의원총회는 정회원 종목단체장으로,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이사 등 총 36명으로 구성되어 체육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체육회 행정 및 생활체육사업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사무국장과 8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지도 및 참여 활성화, 각종 체육활동 지원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동래구체육회의 특징 중 하나는 동래구 국민체육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수영·헬스 등 8개 종목, 80여 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고 월 회원은 3,800명에 달합니다. 향후 다종목 체험, 자격증 취득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가해 보다 많은 구민이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Q. 동래구체육회 대표 회원단체들을 알려주세요.

동래구체육회 회원단체들은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파크골프, 족구, 배구, 게이트볼 등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체가 꾸준히 활동하면서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배구협회는 '제21회 여성체육대회',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등에서 우승하며 저력











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래구 배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동호인 간 친목이 끈끈하기로 유명합니다. '제21회 어르신체육대회' 공동 3위,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파크골프협회는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21회 어르신체육대회' 우승,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준우승 등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Q. 동래구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생활체육교실은 구민들이 다양한 종목을 접해볼 수 있도록 배드민턴, 파크골프, 탁구, 클라이밍, 슬로우러닝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선호하는 종목이 다른 만큼 모든 프로그램이 골고루 인기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파크골프, 클라이밍, 슬로우러닝 등이 조기에 마감되어 구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운영하는 상설 프로그램의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동래구를 상징하는 대표 장소 중 하나인 온천천에서는 라인댄스 교실이 열리는데요. 온천천 주변을 오고 가며 라인댄스를 접한 구민들의 참여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래구에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이 있다 보니 태권도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주부 태권도 교실은 중·장년층 여성들의 신체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지도로 오랜 기간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체 운동에 집중해 대사 질환을 예방하고 무릎 관절 등을 강화하는 '엉짱운동교실', 균형 있는 전신 근력 운동으로 10년 젊어지는 몸을 만드는 '영바디교실' 등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상설 프로그램들은 지도자들이 현장으로 찾아가 구민들을 만나고 운동을 가르치기 때문에 더욱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하고 상호 친밀감이 더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동래구체육회가 운영하는 주요 대회 및 행사는?

'동래구청장배 유소년축구대회'에서는 지역 유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로 교류하면서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대회를 넘어, 유소년들이 스포츠맨십을 배우고 또래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자리가 됩니다. 유소년 시기에는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통해 운동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더 많은 유소년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동래읍성축제'에서는 동래구체육회 종목단체들과 협력해 생활체육 시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줄넘기, 국학기공, 체조 등 다양한 종목의 동호인들과 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동래구청 태권도팀과 교류가 있는지요?

동래구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은 2006년 창단했으며 현재 부산에서 유일한 여성 태권도팀으로 감독과 선수 8명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등을 획득했고 올해 전국선수권대회에서도 금, 은메달 1개씩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동래구체육회는 매년 전국체육대회 현장에 방문해 동래구 태권도팀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도 참석해 동래구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Q.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올해 10~11월에 동래구청장배 체육대회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에는 배드민턴과 탁구, 11월에는 게이트볼·파크골프·테니스 대회 등이 열리게 됩니다. 동래구청장배 체육대회는 동래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며 화합하는 큰 행사입니다.
동래구체육회는 단순히 대회를 개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구민이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목별 동호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되도록 운영 내실을 높이는 한편, 지역 체육인 교류의 장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MINI INTERVIEW

안녕하십니까.
동래구체육회 회장 정길호입니다.
저는 동래구체육회 민선 2기 회장으로서 2023년부터 27만 동래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래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생활 곳곳에 체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곳입니다. 동래구체육회 모든 구성원은 '건강한 동래구, 행복한 동래구'를 바탕으로 구민들의 행복과 화합, 건강을 슬로건으로 삼고 함께 걸어왔습니다.
회장직을 수행하며 기억에 남는 일은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지만, 2025년 겨울에 체육회 구성원과 함께했던 제주도 워크숍은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에 모였는데, 날씨가 갑자기 너무 나빠져 예약했던 비행기가 취소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2주 뒤에 어렵게 다시 모여 한라산 등반을 했는데요. 오르기 힘든 구간에서는 서로 챙기고 격려하며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서로에게 더욱 신뢰감이 생기고 결속력 또한 강해졌습니다. 한라산에서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처럼, 동래구체육회도 한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5월, 동래구체육회가 동래구공공지원센터로 이전한 것도 뜻깊습니다. 구성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구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운동을 두루두루 좋아하는 편이라 체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릅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구민들이 행복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0~11월 열리는 동래구청장배 대회, 협회장기 대회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호인들의 생각, 현장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서 어제보다 더 나은 동래구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며 소통하고 애써주시는 사무국장님, 생활체육 지도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성료

330만 부산 시민의 열정과 화합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동호인 선수단 3,000명 열띤 경쟁

지난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 개최된 부산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축제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330만 부산 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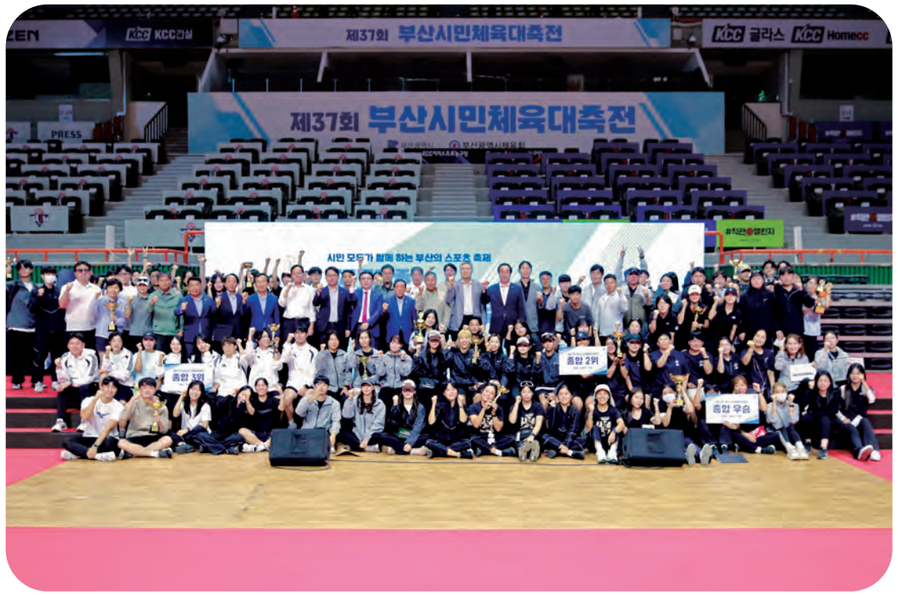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축전은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전야제를 시작으로 부산 시내 주요 경기장에서 15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시민 1만 5,000명과 선수 및 임원 5,000명 등 총 2만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육 경기를 함께 즐겼다.

1일 차 행사로 열렸던 전야제에는 8,0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이날 16개 구·군 선수단의 화려한 입장식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축하 공연과 시민 참여 이벤트가 펼쳐져 연령과 계층을 넘나드는 통합의 장이 꾸려졌다.

특히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도시 부산과 모두를 위한 스포츠 행복도시 부산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는 전야제를 찾은 부산 시민과 동호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행사 2일 차에 열린 체육대회에는 축구, 배드민턴 등 총 15개 종목의 구·군 선수단이 출전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열띤 경합을 벌였다. 영예의 종합우승은 북구체육회에 돌아갔으며, 종합 2위는 남구체육회가 차지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은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330만 시민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뜻깊은 축제였다"며 "앞으로도 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SC NEWS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제8대 동반성장위원장 선임

체육과 경제를 잇는 가교 역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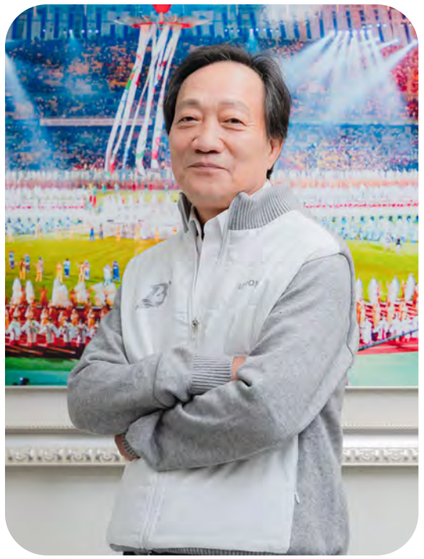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 제8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부산체육의 새로운 성장 발판 마련과 지역 상공계와의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에 기대가 모인다.

장인화 회장은 그동안 체육회장을 맡아오면서 분야별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왔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2025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52년 만에 종합순위 2위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으며, 임기 동안 지속적인 상위권 성적을 확보하며 부산 전문체육의 경기력 제고와 전국체전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왔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부산이 2024년 생활체육 참여율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실현과 시민 스포츠 복지 확대에 앞장서 왔다. 아울러 부산광역시가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체육국을 신설하며 체육을 독립적인 행정 분야로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탰으며, WADA 총회 유치위원장으로서 아시아 최초 총회 유치·개최를 이끌어 부산이 국제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장인화 회장의 활약은 스포츠마케팅과 스포츠산업, 체육회 경영 분야에서도 두드러졌다. 지역 기업인 출신이자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출신으로서 구축한 지역 경제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체육회 공식 후원을 확대하고, 스포츠 콘텐츠를 활용한 시민 친화적인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북항마리나 등 공공체육시설의 수탁운영을 확대하고,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흑자 운영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성과를 통해 체육회의 자립 기반 강화에도 힘써왔다.

이에 제8대 동반성장위원장으로서 기업의 체육 참여와 스포츠 후원이 부산체육의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지역경제계가 상호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BSC NEWS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지난 9월 17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시청 1층 대강당에서 '부산대표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하며 선수단의 선전을 다짐했다.

이번 결단식은 오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부산대표선수단의 선전을 다짐하고, 시민들의 응원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 이강국 부산시 부교육감을 비롯한 체육계 인사와 선수·지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필승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 체전 준비 상황 보고 ▲ 선수단 훈련 영상물 상영 ▲ 단기수여 ▲ 선수 대표 선서 ▲ 격려 ▲ 결의 다짐 순으로 진행됐다. 선수단 단장인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은 전재수 부산광역시장에게 단기를 전달받았으며, 정구 정영만 선수와 태권도 김민서 선수가 선수 대표 선서를 맡아 결연한 각오를 다졌다.

또한 부산상공회의소, 부산도시가스, BNK부산은행, 부산광역시체육회골프동우회, 부산광역시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에서 선수단에 격려금을 전달하며 응원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작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국 2위라는 부산체육 역사에 길이 남을 값진 성과를 거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제주에서 다시 한 번 당당하게 증명하겠다"고 결의를 다짐했으며, "부산의 자부심으로 뛰고 부산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부산대표선수단에게 부산시민들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중구체육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건강상 수상

지난 9월 12일(토)과 13일(일) 양일간 사직실내체육관 외 10개소에서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개최됐다. 12일 펼쳐진 전야제에서는 중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낸 퍼포먼스를 만나볼 수 있었다. 13일에는 국학기공, 게이트볼, 배드민턴, 볼링, 족구, 축구, 체조, 테니스, 파크골프 등 총 9개 종목별 대회가 열렸으며, 110여 명의 참가자들이 화합과 열정 속에서 건강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구체육회

서구 볼링팀 부산시민체육대축전 종합우승

지난 9월 12일(토) 개최된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에서 서구팀 볼링선수단 남자부와 여자부가 각각 1위, 2위를 기록하며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종합우승은 단순한 결과를 넘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쌓아온 호흡과 경기 운영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실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모습에서 서구 볼링의 탄탄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군체육회 소식



동구체육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전야제 빛낸 사자탈 퍼포먼스

지난 9월 12일(토)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전야제가 펼쳐진 가운데 동구체육회가 동구 선수단 입장에 앞서 동구 관내 화교학교 학생들의 멋진 사자탈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날 학생들은 역동적인 사자탈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동구체육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동구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영도구체육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질서상 1위 수상

영도구체육회는 9월 12일(토)과 13일(일) 부산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린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에 검도, 배구,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축구, 테니스, 파크골프 등 총 12개 종목에 선수단 156명(감독·코치 포함)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대회 종료 후 진행된 종합시상에서는 질서상 1위를 수상하며 영도구 생활체육인의 단합된 모습을 알렸다.



부산진구체육회

제45회 부산진구청장배 축구대회 개최

부산진구체육회가 지난 9월 20일(일) 황령산레포츠공원 대운동장에서 '제45회 부산진구청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진구 축구 동호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경기마다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참가팀들은 승리를 향한 열띤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스포츠맨십을 발휘했고, 이는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동래구체육회

제21회 동래구청장배 족구대회 개최

동래구체육회는 지난 9월 20일(일) '제21회 동래구청장배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300여 명의 족구 동호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친 한편,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생활체육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족구 동호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생활체육 축제의 장으로서 족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남구체육회

제1회 부산마스터즈 탁구대회 개최

지난 9월 19일(토) 남구체육회가 부산남구국민체육센터 1관·2관에서 '제1회 부산마스터즈탁구대회'를 개최했다. 남구체육회, 남구탁구협회, 금정구탁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남녀 연령별 개인 단식 경기로 진행됐으며, 예선 경기를 거친 뒤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참가선수들은 꾸준히 다져온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선의의 경쟁을 실천했다.



북구체육회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종합우승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에서 북구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북구 선수단은 170명이 총 14개 종목에 참가해 그라운드골프 1위, 검도·게이트볼·족구·체조 2위, 축구·테니스 3위 등 종목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종합우승의 기쁨을 안았다. 이번 우승을 계기로 북구체육회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해운대구체육회

제11회 해운대구청장배 검도대회 개최

지난 9월 5일(토) 기장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제11회 해운대구청장배 검도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가한 130여 명의 검도 동호인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그동안 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선보였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량 향상에 대한 의욕을 높이는 한편,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사하구체육회

제10회 사하구 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 개최

지난 9월 5일(토) 을숙도 다목적구장과 신평레포츠공원에서 '제10회 사하구 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테니스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테니스 동호인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하구 테니스 동호인들은 열띤 경쟁을 펼치는 한편, 서로 소통하고 친목을 다지며 생활체육의 즐거움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연제구체육회

제29회 연제구청장기 축구대회 개최

연제구체육회가 지난 9월 6일(일) 해운대수목원 축구장, 동래고등학교 축구장에서 '제29회 연제구청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축구 동호인 350여 명은 정정당당하고 열정적인 플레이로 경기에 임했으며,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경기 결과 충렬축구회, 명륜축구회가 공동우승을 차지했다.



수영구체육회

2026년 수영구청장배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수영구체육회가 수영구 협회 종목별 동호인들의 체력 증진과 화합을 위해 9월 6일(일) '2026년 수영구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수영구국민체육센터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는 게이트볼, 궁도,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생활체조, 탁구, 테니스 총 7개 정회원단체 1,500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해 화합과 친목을 다졌으며, 공통의 관심사와 목표를 공유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구군체육회 소식



금정구체육회

제5회 금정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지난 9월 14일(월) '제5회 금정구청장배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코스를 따라 경기를 즐기며 서로에게 박수를 보냈고, 아쉬운 순간에는 격려를 건네는 등 동호인 간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금정구체육회는 앞으로도 파크골프를 비롯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강서구체육회

2026년 강서구청장배 종목별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지난 9월 20일(일) 명지 오션시티 축구장 외 10개소에서 '2026년 강서구청장배 종목별 동호인체육대회'가 열렸다. 강서구가 주최하고 강서구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총 11개 종목 1,2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했다. 또한 단순한 경쟁을 넘어 지역 내 체육 동호인들이 하나로 결속하고, 생활체육이 주는 건강한 에너지를 공유하는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서 그 의미를 더했다.



사상구체육회

2026년 사상구청장배 야외 6개 종목대회 개최

사상구와 사상구체육회는 9월 6일(일) 삼락생태공원·화명생태공원·엄궁유수지 테니스장에서 '2026년 사상구청장배 테니스·축구·게이트볼·야구·족구·그라운드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사상구 6개 종목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총 58개 팀 911명이 참가해 교류와 화합을 다졌다. 참가자들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쳤으며, 6개 종목 모두 부상자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지으며 지역 생활체육의 활력을 더했다.



기장군체육회

2026년 기장군 종목별 협회장기 개최

기장군이 9월 13일(수)부터 20일(일)까지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간 화합을 위해 '2026년 기장군 종목별 협회장기'를 개최했다. 배드민턴, 야구,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배구, 게이트볼, 테니스, 축구, 족구, 검도, 볼링, 패러글라이딩, 탁구 등 총 13개 종목별 대회가 기장군 일원과 인근 체육시설에서 진행됐으며, 약 3,800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여했다. 이번 협회장기 대회는 종목별 동호인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

01 부산국민체육센터



하반기 안전사고 예방 및 심폐소생 교육 실시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지난 9월 30일(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심폐소생 및 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2회 실시되는 교육은 급성 심정지와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응급상황 대처법, 공중위생 관리 등을 배우고 직접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02 북구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지난 9월 14일(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북구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단은 센터 건물 구조와 내부 시설, 전기·소방시설, 운동기구 상태 등 시설 전반의 안전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앞으로도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03 강서구국민체육센터



제4회 강서구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지난 9월 11일(금) 강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2026년 제4회 강서구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지역 장애인과 관계자들이 참여해 e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에서 경기를 펼치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안전하고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했으며,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04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개최

지난 9월 13일(일)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테니스 경기가 펼쳐졌다. 전날인 9월 12일(토) 전야제를 시작으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부산 16개 구·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이어갔다.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테니스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다.

05 부산실내빙상장



추석맞이 정(情) 나눔 감사 이벤트 진행

부산실내빙상장이 지난 9월 20일(일) 추석 명절을 맞아 빙상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날 부산실내빙상장은 그동안 보내준 성원과 감사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방문객들에게 떡과 식혜를 건네며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했다. 부산실내빙상장은 앞으로도 이용객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온정이 넘치는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06 신평장림체육관



소방교육 및 대피훈련 실시

신평장림체육관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기 대응, 이용객의 안전한 대피 유도 등 상황에 따른 직원들의 대응 절차와 역할을 확인하고 숙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용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대피 동선을 점검하고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신평장림체육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방교육과 훈련을 통해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07 북항마리나스포츠센터



수영강습 본격 운영 및 기념품 증정

북항마리나스포츠센터 수영장은 지난 9월 3일(목) 수강신청을 시작으로 9월 8일(화)부터 본격적인 수영강습 운영에 들어갔다. 수강생들은 각자의 수준에 맞는 강습을 통해 수영의 기본기를 익히고,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또한 수영강습 운영을 기념해 이용객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북항마리나스포츠센터는 이번 수영강습을 시작으로 이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01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부산광역시거점 스포츠클럽 소속 장준서 제70회 장호배 남자부 우승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소속 장준서 선수가 국내 주니어 테니스의 전통 있는 무대인 '제70회 장호 홍종문배 주니어 테니스대회' 남자부 정상에 올랐다.

중학교 3학년인 장준서 선수는 이번 대회 남자부 1번 시드로 출전해 결승에서 고등학교 3학년 선수를 6-1, 6-4로 꺾고 장호배 첫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준결승에서 그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상대를 넘어선 데 이어, 결승에서도 자신보다 세 살 많은 선수를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우승을 완성했다. 어린 나이에도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과 강한 스트로크를 앞세우며 국내 주니어 무대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다.

이번 우승은 장준서 선수 개인의 값진 성과이자 부산 지역 테니스 유망선수의 성장과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한다. 장준서 선수는 이번 대회 우승을 발판으로 국내외 대회에 꾸준히 출전하며 경험과 기량을 쌓아갈 예정이다.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은 앞으로도 장준서 선수를 비롯한 지역 유망선수들이 안정적인 훈련 환경에서 기량을 키우고 전문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02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축구 전문선수반 화랑대기 무대에 서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축구 전문선수반 U11·U12 선수들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경주시 일대에서 열린 '2026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U11과 U12 선수들의 첫 화랑대기 출전으로, U11 선수들은 전국 각지의 팀들과 총 6경기를 치르며 2승 1무 3패를 기록했다. U12 선수들은 FC서울, 원주리더스, 다산주니어와 예선 경기를 치러 2승 1무를 기록하며 1위 리그에 진출했다. 이후 토너먼트 4강까지 올라 대동주니어와 경기를 펼쳤으며, 3·4위전까지 치른 끝에 최종 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U11과 U12 선수들은 여러 팀과 경기를 치르며 현재의 경기력을 점검하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다. 특히 U12 선수들은 1위 리그 진출에 이어 전국 4위라는 성과를 거두며 화랑대기 첫 출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남겼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앞으로도 선수들이 다양한 경기를 통해 경험을 넓히고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과 전문선수반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산체육 퀴즈

『부산체육』을 읽고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이번 호에 실린 기사에서 퀴즈의 정답을 모두 찾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체육을 더욱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1 강서구는 낙동강 하류, 서낙동강을 품은 천혜의 수변 환경과 국내 최고 수준의 수상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카누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팀의 창단 배경이 된 경기장은 무엇일까요?

①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② 낙동강 수상레저경기장 ③ 가덕도 해양스포츠경기장

2 지난 9월 열린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에는 16개 구·군 시민과 선수 등 약 2만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종목에서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 가운데 탁구 종목에는 부산 몇 개 구·군 선수들이 참가했을까요?

① 12개 구·군 ② 14개 구·군 ③ 16개 구·군

3 지난 9월 개최된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에서 북구 선수단이 여러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북구 선수단은 총 몇 개 종목에 참가했을까요?

① 12개 종목 ② 14개 종목 ③ 16개 종목

『부산체육』 제94호 〈부산체육 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② 14초07 2. ② 국가대표 2명·상비군 1명 3. ② 46개국

당첨자

문○용(5666) **유○경**(4099) **박○미**(3435) **정○담**(1581) **노○원**(1328)
이○정(6685) **왕○자**(0385) **임○영**(3374) **이○연**(9149) **박○용**(4615)

퀴즈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힌트와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 풀어보세요!



1 힌트 강서구는 낙동강 하류와 서낙동강을 품은 천혜의 수변 환경을 자랑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수상 스포츠 인프라인 '○○○○ ○○○○○○○'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산체육人> 5쪽

2 힌트 이번 대회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고 부산광역시와 함께 주최했으며, 16개 구·군 시민 1만 5천여 명과 선수 5천여 명 등 약 2만여 명이 참여해 대축전의 규모를 더했다. 12일에는 개회식과 축하공연이 진행됐으며, 13일에는 15개 종목에서 부산 시민들의 열띤 경기가 펼쳐졌다. 그중 탁구 경기는 사직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돼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화합을 느낄 수 있었다. 탁구 종목에는 부산 ○○개 구·군 선수 220여 명이 참가해 팽팽한 경쟁을 펼쳤다.

<스포츠 기자단> 31쪽

3 힌트 '제37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에서 북구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북구 선수단은 170명이 총 ○○개 종목에 참가해 그라운드골프 1위, 검도·게이트볼·족구·체조 2위, 축구·테니스 3위 등 종목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종합우승의 기쁨을 안았다.

<회원단체 소식> 49쪽

이벤트 응모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1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기간
2026.10.15.(목) ~ 10.30.(금)

응모 방법
네이버 폼 양식 작성 후 제출

정답 및 당첨자 발표
『부산체육』 제96호 <부산체육 퀴즈> 게재 및 개별 연락

네이버 폼 바로 가기

www.busanaircruise.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파트너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다이노 어드벤처


어린왕자


어린왕자 비행기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문의전화 051)247-9900

BUSAN AIR CRUISE 송도해상케이블카

DaewonPlus Group 대원플러스그룹

www.eunsan.co.kr

銀山
World Best Global Leader Eunsan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파트너

된다!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회장 양재생



글로벌 종합물류, 은산해운항공

OCEAN CARGO 해상화물 / AIR CARGO 항공화물 / WAREHOUSE 창고보관업 / HOUSEHOLD GOODS 이주화물 / INLAND TRANSPORTATION 내륙운송
EXPORT PACKING 수출 포장업 / LCL CONSOLIDATION LCL 화물 / PROJECT CARGO, HEAVY/BULK CARGO 프로젝트, 중량 / 벌크화물

전 화 : 051-441-9966 / 02-772-9966　　팩 스 : 051-441-9969 / 02-773-9969　　E-mail : info@eunsan.co.kr


양산터미널


신항만녹산터미널


신항만화전터미널


신항만웅동터미널


경인터미널


인천국제공항터미널


은산수출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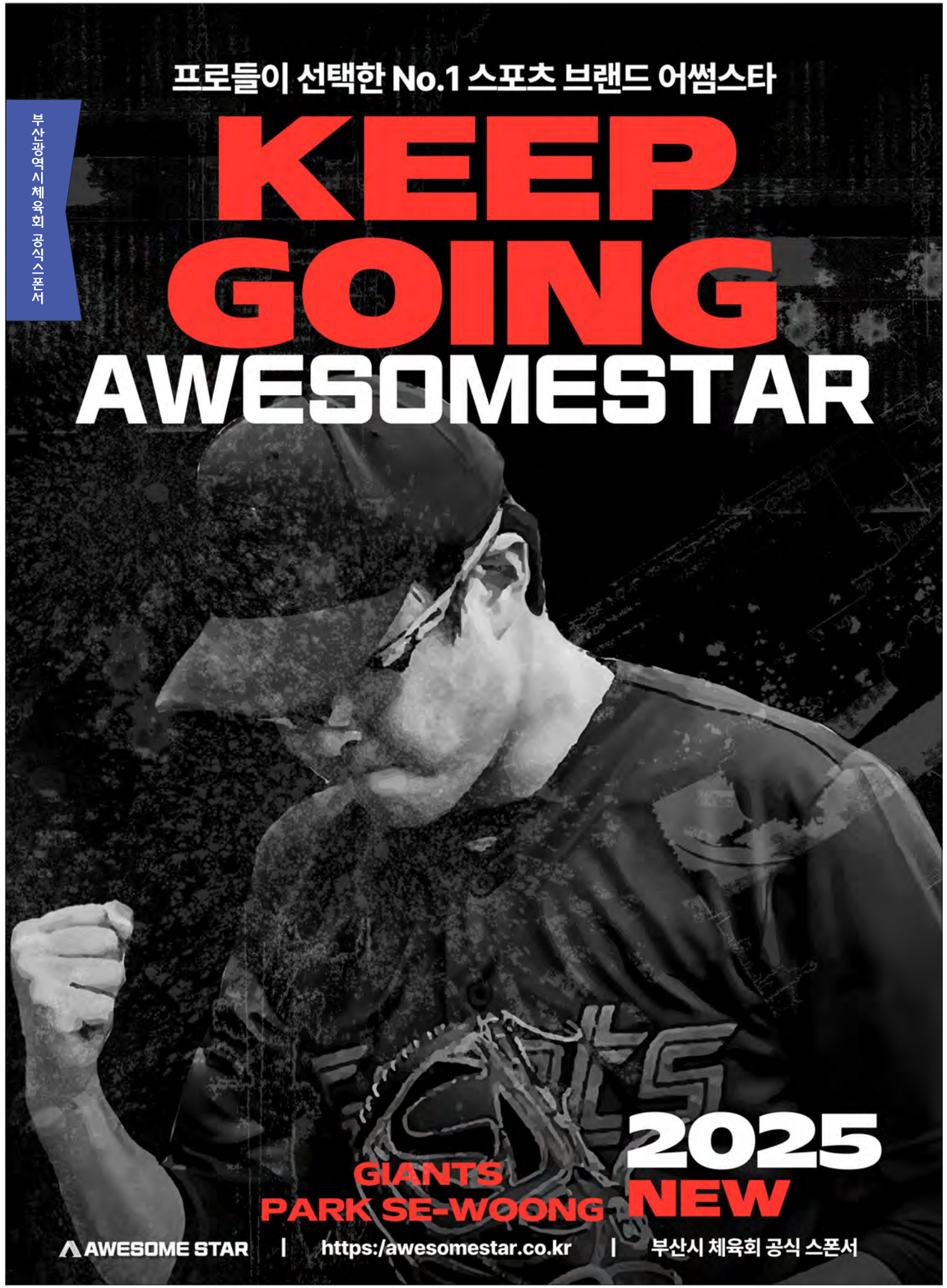

은산로직스

프로들이 선택한 No.1 스포츠 브랜드 어썸스타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스폰서

KEEP GOING

AWESOMESTAR



GIANTS
PARK SE-WOONG
2025 NEW

AWESOME STAR | https:/awesomestar.co.kr | 부산시 체육회 공식 스폰서

박원욱병원
PARK WEON WOOK HOSPITAL

척추·관절

슬기로운 의사들의
환상적인 드림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226-중-163463호

| 척추·관절 | 척추측만증 | 척추 재수술
| 스포츠재활 | 통증·도수치료 | 뇌·신경질환

☎ 대표전화 | 1544-7582

2호선 광안역 (박원욱병원) 5 박원욱병원

www.parkspine.co.kr

광안역(박원욱병원) 5번 출구



안녕하세요.
1등 테크 기업, 화승입니다

화승은 압도적 탄성체 기술력을 보유한 1등 테크 기업으로 앞서갑니다.
초격차의 기술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갑니다.

No.1 Tech Company

HWASEUNG

HWASEUNG 화승은 인화(人和)의 경영이념 아래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1등 테크기업이라는 비전으로 수익성 최우선, 사회적 가치 실현, 고유한 기업자산 구축의 핵심가치를 통해 100년 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자동차부품


스포츠패션ODM


소재


종합무역


화학

신일디엔피는 원-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기획에서 인쇄 제작, 배송까지 한번에 처리!

편집디자인, CI, BI 및 인쇄, 제본,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제작하는 디자인 인쇄 전문 기업!

Creative Design
편집디자인 / 북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광고디자인 / CI, BI
POP, SIGN

Process Service
그래픽작업 / 스캔
인쇄교정
CTP, 필름출력 등
제작프로세스

Total Printing
인쇄 – 제본 – 배송

Marketing Plan
광고기획 / 매체전략
프로젝트 기획



주식회사 신일D&P design&printing

광고디자인·인쇄 전문기업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31 501호(신일빌딩) **T** 051.469.8275 **F** 051.466.6680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꿈을 향한 무한 질주
BNK가 응원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질주!
그 끝에 전율과 감동으로 하나되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스포츠,
BNK부산은행이 함께 합니다



| BNK부산은행 육상실업팀 최기만 선수 |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